

한국u-City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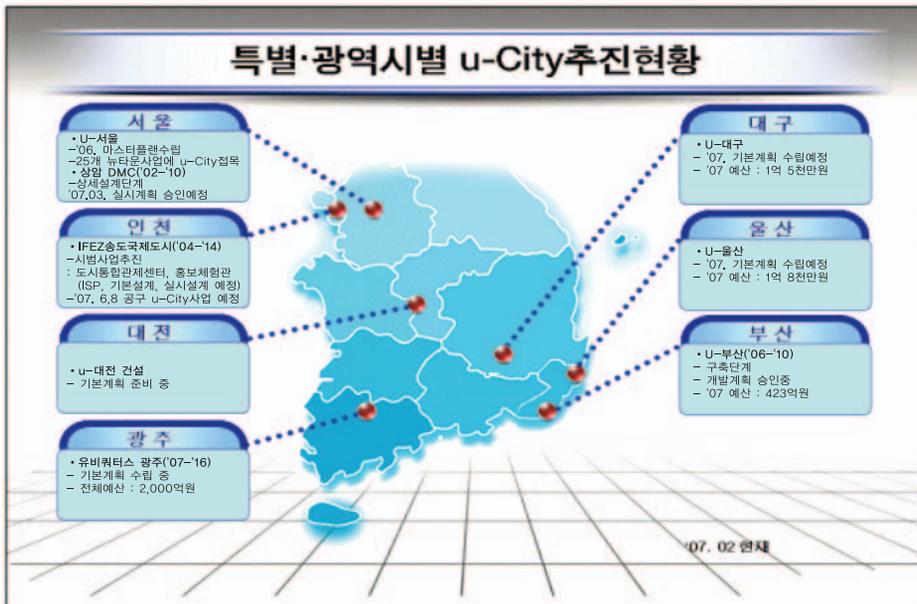


민병호
한국u-City 협회 사무국 상무이사



u-City는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간시설에 접목시켜,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도시이다. 수도권 주변의 용인흥덕, 화성동탄, 파주운정 등 새롭게 구축되는 2기 신도시가 u-City로 개발되고 있으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 u-City 건설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한국의 u-City는 한국의 ICT 기술 경쟁우위 및 ICT 기술 수용에 우호적인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IT기반 지능형 도시인 'INTELCITIES',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싱가포르의 'One-North' 등 세계적인 정보화 도시 구축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발 앞선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ICT를 기반으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커다란 비전을 가진 u-City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정보통신, 그리고 건설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와 표준화, 그리고 u-City라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정책 및 법제도 분야의 재정비 등 도시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ICT와의 결합이라는 광범위한 테마에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극복과 성공적인 u-City 추진을 위해 u-City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뜻을 모아 2005년 5월 12일 ‘(사)u-City포럼’이 구성되었고 이듬 해 8월,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U-City 확산 및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한국u-City협회’가 창립되었다. 한국 u-City협회의 목표는 도시민들이 원하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도시 구현 초기단계에 반영하고, 도시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반영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투자비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가치의 증대라는 u-City 비전의 실현이다.



한국u-City협회는 IT기업과 건설사 등 국내 유수의 기업,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총회 산하에 u-City포럼과 IP-USN포럼, 그리고 u-City지역단체협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u-City포럼은 다시 기술/인증 분과, 서비스 분과, 기술 분과, 그리고 u공간건설분과로 나뉘어 분과 별로 u-City 관련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전문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u-City협회의 조직은 위와 같다.

한국u-City협회의 주요 활동은 먼저 u-City포럼의 분과별 표준화 및 u-City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u-City를 구성하는 서비스와 기반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비롯하여, u-City인프라에 대한 인증 가이드라인 연구 및 u-City법제도 보완을 위한 u-City 건설지원법(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City 2013 시나리오 연구, u-기업도시 모델 개발 연구 등 한국u-City협회에서 추진하는 7개의 연구과제는 u-City의 기반을 정비하고 방향성을 정립함으로써 성공적인 U-City 추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u-City 국제컨퍼런스 (2006.11.30)를 주관하여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관련업체, 교수 등 u-City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회원이 참가하여 국내외 u-City 산업동향 및 전망을 위한 회원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u-City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국내외 유비쿼터스 및 지역전문가와 함께 u-City 트렌드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공론화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포럼 또는 협의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u-City 기술과 서비스 등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을 도모하는 “u-City지역단체협의회”를 발족하였고, u-City 추진현황 조사를 통해 신·구도시별 2007년도 u-City 추진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정부, 관계기관, 회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u-City 정책수립과 사업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한국u-City협회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먼저, 지자체 및 기업협력을 통한 u-City시범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u-청계천, 광주 u-컨벤션센터, u-해운대, u-태화강, u-세종·연기, u-송도국제비즈니스도시 다양하게 전개되는 u-City시범사업의 수행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u-City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u-City 국제컨퍼런스는 약 700명 규모로 10월 1일에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컨퍼런스와 동시에 COEX 대서양홀에서 u-KOREA EXPO 2007 전시회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150개 업체, 약 500부스 규모로, FTTH산업협회 및 한국정보통신신문사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한다. 또한, u-City 미래전략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u-City 솔루션북을 발간하여 u-City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업의 솔루션 및 기술 현황을 정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며, 그 밖에 u-City 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u-City협회는 앞으로도 최첨단 u-City 구현을 위한 기술혁신 가속화 및 홍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u-City 기반확산과 정보교류, 대외협력 및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u-City가 국가 선도 사업으로서 국가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일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날까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참고: 한국u-City협회 연혁〉

- u-City포럼 준비협의회 구성(2004. 11. 30)
- u-City포럼 창립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 (2005. 04. 26)
- u-City포럼 창립을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2005. 05. 06)
- u-City포럼 창립(2005. 05. 12)
- u-City포럼 제1기 정기총회(2006. 02. 28)
- 한국u-City협회 창립(2006. 08. 29)
- 2006 u-City 국제컨퍼런스(2006. 11. 30)
- u-City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2007. 01. 23)
- u-City지역단체협의회 발족(2007. 01. 29)
- 한국u-City협회 제1기 정기총회(2007. 02. 23)
- IP-USN 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2007. 02. 26)
-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워크숍 (2007. 04. 27)
- u-Biz 컨퍼런스 2007(2007. 05. 30)
- 『u-City와 미래도시 전망』을 위한 국제세미나 (2007. 06. 28) **TTA**



〈2006 u-City국제컨퍼런스, 남중수 회장〉



James Law / James Law Cyberecture International
〈오전 통합세션 전경-1〉



Peter Leong / Singapore Polytechnic
〈오전 통합세션 전경-2〉